

2. 脫北 現象

- (背景) 지난 1994년부터 탈북 및 귀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
- (焦點)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북한 상층부 인사들의 연이은 탈북 현상임
- (意味) 이러한 현상이 곧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, 체제 위기의 심각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
- (對策)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이러한 긴급 사태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

지난 1994년부터
탈북 및 귀순자의
수가 급증하고 있
음

- (背景) 탈북자의 급증 추세
 - 1994년부터 탈북 및 귀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
 - 1990년에서 1993년 사이 겨우 8명 정도에 불과했던 귀순자 수가 1994년에는 50명, 그리고 1995년에는 38명으로 증가하였음
 - 탈북자의 경우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, 현재 중국에 약 1,000명, 그리고 러시아에 약 5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

특히 우리의 관심
을 끄는 것은 최근
북한 고위층 인사
들의 연이은 탈북
현상임

- (焦點) 최근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탈북 현상
 -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1994년부터 계속되는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탈북임
 - 첫 발단은 1994년 7월 강성산의 사위 강명도씨와 김일성대학 강사 조명철씨의 귀순이었음
 - 1995년 10월에는 인민무력부 상좌였던 최주활씨, 12월에는 북한 장관급 인사의 아들인 최세용씨 일가족이 귀순함
 - 금년 1월에는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현성일, 최수봉씨 부부와 차성근 안전요원이 탈북·귀순함
 - 특히 지난 2월 중순에 알려진 김정일의 前妻 성혜림씨와 그 일가족의 모스크바 거주지 탈출 소식은 전

세계를 놀라게 함

- 또한 2월 14일에는 북한 사회안전부 소속 조명길 하사의 평양 러시아무역대표부 난입을 통한 무장 망명 기도가 있었음

이러한 탈북 현상이 곧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, 체제 위기의 심각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

- (意味)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, 체제 위기의 심각도를 여실히 드러냄
 - 최근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연이은 탈북 망명이 곧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
 -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지시가 하부기관이나 인민들에게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
 - 따라서 현재로서는 과거 동독에서와 같은 집단적인 국경 탈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음
 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러한 사건들을 미루어 볼 때, 북한 체제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임
 - 식량난, 에너지난 등 극심한 경제난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
 - 게다가 이데올로기의 약화 및 부패의 만연 등 각종 사회적 불안 요소들도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
 -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의 세대간의 갈등 또한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 - 한편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북한이 꾀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, 나진·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등과 같은 경제 회생 조치들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
 - 당장은 아니더라도,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제 붕괴의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봄

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이러한 긴급 사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

- (對策)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긴급 사태 방지를 위한 노력의 병행
 - 비록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지만, 언젠가 닥칠 지도 모르는 집단적인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함
 - 동포애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탈북자 전원을 수용해야 마땅하나, 이들을 무조건 수용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함
 - 서독의 경우는 「긴급수용법」을 일찍부터 제정, 5백만 명에 달하는 동독 탈출자 전원을 커다란 사회 혼란없이 수용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에 소요된 비용은 엄청난 것이었음
 - 정부도 「통합대비계획」이라는 명칭 아래 이에 대한 종합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임
 - 대비책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긴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임
 - 대량 탈북 사태 및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는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, 또한 그것이 일부에서 믿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도 없음
 - 따라서 이러한 긴급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며, 이는 우리 정부의 통일 원칙인 '3단계 통일 방안'에도 부합하는 것임
 - 보다 구체적으로는,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혁, 개방을 통해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북 유화책의 일관된 추진이 요구됨

(김 옥)